

# 방송융합시대에 적합한 관련 기금의 정비 방안

2006. 7. 3

## 요약

- I. 방송융합시대의 적합한 예산 구조와 기금  
정비의 필요성
- II.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 III.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 IV.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평  
가와 이슈
- V.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기금의 정비

작성 : 권호영 책임연구원(3219-5452)

hykwon@kbi.re.kr

**요 약**

**I.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여 관련 기금 정비가 필요함**

■ 방통융합에 적합한 예산 구조가 필요하고 관련 기금을 정비해야 함

- 방통융합에 적합한 형태로 행정 기구가 개편될 것임
- 수평적으로 사업자 분류가 개편됨에 따른 정책 기능의 조정이 예상됨
- 기구 개편시 기금의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방송과 통신 부문의 예산 사용 현황

-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위원회 등이 연간 3천억원 미만의 기금과 국고를 사용하고 있음
- 통신부문에서는 정보통신부가 7조 여원 국고와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II.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2006년도의 경우 2,200억원임(<표 1> 참조)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최근 2년간 약간 감소했음

<표 1> 방송발전기금 규모와 운용현황(2003~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64,320	100.0	239,120	100.0	229,812	100.0	220,050	100.0
기금관리비	22,397	13.6	25,423	10.6	29,105	12.7	31,093	14.1
사업비	111,302	67.7	94,294	39.4	128,804	56.0	165,861	75.4
정부내부지출	10,000	6.2	30,000	12.5	-	-	-	-
여유자금운용	20,621	12.5	89,403	37.4	71,903	31.3	23,095	10.5

출처: 대한민국정부, 「기금운용계획」, 각년도.

### ■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사업

- 방송발전기금의 사업중에서 공익방송지원사업과 방송진흥사업의 비중이 큼
- 공익방송지원사업은 아리랑TV, 교육방송, 국회방송 등에 지원하는 사업임
- 최근에 시청자지원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Ⅲ.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6조 6,811억원이며, 순조성액은 1조 7,910억원임

<표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993-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조 성	25,414	3,960	4,626	16,743	6,808	4,782	4,478	66,811
사 용	7,452	3,698	3,373	12,749	7,913	6,893	6,823	48,901
순조성	17,962	262	1,253	3,994	-1,105	-2,111	2,345	17,910
누 계	17,962	18,224	19,477	23,471	22,366	20,255	17,910	

주 :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에 해당함

자료 : 정보통신부

### ■ 주요 사업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
- 창의적 IT전문인력 및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
- IT938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
- IT R&D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구축

### IV.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와 이슈

- 2002년 이후 기금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짐
  -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감사원, 2003년 7월)
  -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 과제(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 9월)
  - 기금준치 평가보고서(기획예산처, 2004년 8월)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 기금 운용 평가(기획예산처, 매년)
- 방송발전기금의 이슈
  - 방송발전기금을 문화예술 및 언론 부문에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 방송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는 문제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 공익방송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중복
- 정보진흥기금의 이슈
  - 기금 조성액의 감소
  - 중장기기금운용 계획과 2006년도 계획안의 불일치(국회예산정책처, 2005)
  - 포괄적 근거에 의한 사업의 추진
  - 일반 회계 및 타 기금 사업과의 중복

## V.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기금의 정비

### ■ 기금의 정비의 원칙

- 기금의 용도를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야 함
- 기금의 관리 기관을 행정기구의 개편에 맞추어야 함
-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함

### ■ 기금의 정비 방안

- 수평적 사업자 분류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시장경쟁체제인 네트워크 부문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양 기금을 콘텐츠진흥기금(가칭)과 네트워크진흥기금(가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관리주체를 정함
  - 단일기구가 총괄할 경우에는 이 기구가 관리
  - 독립제 정책(진흥 포함) 기구와 위원회 규제 기구로 분리시 정책(진흥 포함)기구가 기금을 관리

## I. 방통융합시대의 적합한 예산 구조와 기금 정비의 필요성

- 방통융합에 적합한 예산 구조가 필요하고 관련 기금을 정비해야 함
  - 방통융합에 적합한 형태로 행정 기구가 개편될 것임
    -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됨
      - 정책과 규제 또는 정책과 진흥 기능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이견이 있음
      - 기구의 형태에 대해서 독립제 및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
  - 수평적으로 사업자 분류가 개편됨에 따른 정책 기능의 조정이 예상됨
    - 수직적 분류에서 수평적 분류로 개편되어야 되어야 함에 대부분 동의함
      - 수평적 분류를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2개로, 아니면 여기에 플랫폼을 추가한 3개로 분류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함
    - 수평적 분류 체계에 적합한 예산 배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조정이 쉽지 않음
  - 기구 개편시 정부 예산중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함
    - 예산중 일반회계는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임
    -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음
    - 방송부문의 예산은 대부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출됨
    - 통신부문의 예산에는 일반회계외에 4개의 특별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있음

### □ 방송과 통신 부문의 예산 사용 현황

- 방송부문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연간 3천억원 미만의 기금과 국고를 사용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는 대부분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음(2006년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2,200억원, 국고 약 48억원)
  -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대부분 국고를 사용하고, 정보통신부는 일부 기금을 이용하지만 두 부처의 방송 관련 예산은 소규모임
- 통신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7조 여원 국고와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의 경우 2006년도에 일반회계 약 1,800억원, 4개의 특별회계가 5조 4천여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약 1조 4천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 본 연구에서는 방통관련 기금의 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임

- 기금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어려움
  -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기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기구와 기능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조정이 어려움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통신부문의 4개 특별회계는 기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수월함

## II.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 1. 방송발전기금의 개요<sup>1)</sup>

#### □ 설치 목적 및 근거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 및 방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방송법」 제 36조에 근거하여 2000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구)공익자금을 7월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였음
- 기금의 관리주체는 방송위원회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 교부 및 이에 따른 회계 관리 등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부분 위탁 관리하고 있음.

#### □ 재원의 조성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 출연금, 기타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재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주요 사업 분야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방송기술연구 및 개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1) 국회예산정책처(2005.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문화·예술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남북한 방송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안 등의 사업을 수행함.

## 2. 방송발전기금 운영현황

###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와 운영(<표 1> 참조)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2006년도의 경우 2,200억원임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최근 2년간 약간 감소했음

<표 1> 방송발전기금 규모와 운용현황(2003~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64,320	100.0	239,120	100.0	229,812	100.0	220,050	100.0
기금관리비	22,397	13.6	25,423	10.6	29,105	12.7	31,093	14.1
사업비	111,302	67.7	94,294	39.4	128,804	56.0	165,861	75.4
정부내부지출	10,000	6.2	30,000	12.5	-	-	-	-
여유자금운용	20,621	12.5	89,403	37.4	71,903	31.3	23,095	10.5

출처: 대한민국정부, 「기금운용계획」, 각년도.

- 방송발전기금의 자금 운용 내역에서 사업비의 비중이 급증하였음(2006년의 경우 75.4%)
  - 2006년도에 여유자금의 운영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여유자금이 과다하다

는 지적을 받은 후 시정한 것으로 보임

- 기금관리비(방송위원회의 경비)의 금액과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
- 2003년의 224억원에서 2006년에는 311억원으로 증가(연평균 11% 증가)

#### □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사업(<표 2>참조)

- 방송발전기금의 사업중에서 공익방송지원사업과 방송진흥사업의 비중이 큼
- 공익방송지원사업은 아리랑TV, 교육방송, 국회방송 등에 지원하는 사업임
- 2006년에는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 항목이 추가됨

<표 2> 방송발전기금 주요 사업현황(2000-2006)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익방송지원사업	28,504	24,993	24,957	32,400	47,522	47,522	62,043
시청자지원사업	630	1,354	1,731	2,022	6,050	6,050	11,458
방송진흥사업	5,046	6,283	17,089	12,431	12,897	12,897	35,248
언론공익사업	9,803	10,308	-	-	-	-	-
문예진흥사업	19,610	11,448	-	-	-	-	-
기관단체운영지원	-	-	10,564	10,370	11,088	11,088	14,695
콘텐츠 진흥	-	-	13,038	12,078	17,329	17,329	16,157
디지털전환용자	-	-	-	32,000	17,000	17,000	17,000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2,842	9,362	14,741

출처: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운영계획」, 각년도 등.

- 시청자지원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2000년의 6억 3천만원에서 2006년에는 115억원으로 증가함
  - 이 사업비는 주로 시청자 단체에 대한 지원비와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지출됨
- 기관단체운영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예술단의 경비가 대부분임
  - 언론중재위원회는 78억원으로 53%, 서울 예술단은 41억원으로 28% 차지함
  - 타 기관의 운영비는 지원액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위 두 기관의 운영비는 증액함
  - 방송진흥원, 언론재단 등의 운영비는 일몰제에 의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방송진흥사업에는 디지털케이블TV지원, DMB지원, 방송교류, 조사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콘텐츠진흥사업에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방송광고 사전심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06년도에는 디지털방송심의 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음

### Ⅲ.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개요<sup>2)</sup>

##### □ 설치 목적 및 근거

2) 국회예산정책처(2005.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3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데, 동 기금의 전신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3년에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이며, 1995년 8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1996년 설치된 정보화촉진기금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
-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나누어 그 용도 및 재원을 구분하였는데, 정보통신부는 2005년부터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동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다시 변경하였음
- 정보화촉진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정보화촉진 등의 지원으로 명시하였으나,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을 변경하였음. 동 기금의 용도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과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금의 운용·관리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35조와 제35조의2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 재원의 조성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함.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기금의 조성액은 2004년 말 기준으로 6조 6,811억원이며, 순조성액은 1조 7,910억원임<sup>3)</sup>

3) 2005년도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반계정을 폐지하면서 해당 계정의 잔여재원 및 관련 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함.

<표 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현황

단위 : 억원

	1993-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조 성	25,414	3,960	4,626	16,743	6,808	4,782	4,478	66,811
사 용	7,452	3,698	3,373	12,749	7,913	6,893	6,823	48,901
순조성	17,962	262	1,253	3,994	-1,105	-2,111	2,345	17,910
누 계	17,962	18,224	19,477	23,471	22,366	20,255	17,910	

주 :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에 해당함

자료 : 정보통신부

□ 주요 사업 분야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IT 연구기반 조성사업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표 4>와 같음

<표 4>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
- 창의적 IT전문인력 및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
- IT938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
- IT R&D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구축

자료 : 정보통신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5. 10.

## 2.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현황

###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과 운영(<표 5> 참조)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규모는 2006년도에 1조 3590억원임
  - 정보화촉진기금에 있던 일반계정이 2005년도에 분리됨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 규모가 2001년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5>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조달	자체수입	8,982.30	5,156.46
	정부내부수입	5,060.85	7,962.04
	차입금	-	-
	여유자금 회수	1,645.02	471.92
운용	사업비	8,576.38	9,634.35
	기금운영비	203.62	228.79
	정부내부지출	5,800.00	1,000.00
	차입금상환	-	-
	여유자금 운용	1,108.17	2,727.28
합 계		15,688.17	13,590.42

자료원 : 대한민국정부, 「기금 운용 계획」, 각년도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내역에서 2006년도에 정부내부지출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사업비와 기금 운영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금 운용은 대폭 확대되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사업(<표 6>참조)

-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이 가장 큼
- IT기술개발 투융자,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보통신 연구 등에 지원되고 있음

<표 6>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운용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4,537	5,306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1,078	1,139
	정보통신 표준화 지원	302	335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859	1,083
	IT기술개발 투·융자	1,800	1,800
합 계		8,576	9,663

자료원 : 국회예산정책처,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각년도

#### IV.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와 이슈

##### 1.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

□ 2002년 이후 기금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강화되었음

- 기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면서 기금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기획예산처,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기금을 평가하고 있음

- 국회가 2002년부터 기금을 심의·의결 하고 있음

####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평가 사례

##### ○ 기금 운용 평가(기획예산처, 매년)

- 2000년 이후 기획예산처가 매년 기금을 평가하고 있음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또는 정보화촉진기금)의 평가결과는 대체로 중·하위권임

##### ○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감사원, 2003년 7월)

- 52개 기금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과 ‘신속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의 두 가지 기준으로 ‘높음’ ‘보통’ 및 ‘낮음’의 3가지 척도로 평가함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은 공히 사업추진의 필요성에는 ‘낮음’으로 평가 받았고,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에는 ‘보통’으로 평가 받음

##### ○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 과제(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3년 9월)

- 방송발전기금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음
- 방송발전기금기금의 안정성과 자산관리의 합리성은 비교적 괜찮은 평가를 받음
- 방송발전기금기금의 운용, 사업선정의 적정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 받음

##### ○ 기금준치 평가보고서(기획예산처, 2004년 8월)

- 2003년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기금준치를 위한 평가를 실시함(이에 의거해서 2004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금준치 평가 결과임)

- 총 57개 기금중 18개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라고 평가함
- 방송발전기금은 '존치'로 평가받았으나 장기적으로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후 폐지를 검토하라고 제시함
- 정보화촉진기금은 '존치'하되 일반계정을 폐지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년)

- 2002년이후 기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기금의 조달과 운용을 평가하고 있음
-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4년도 결산 분석 결과에서 융자사업의 실적 저조, 자산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함
  - 2006년도 계획안 분석에서 한국방송공사 지원, 방송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교육방송, 국회방송, 국악방송 등에 대한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4년도 결산 분석 결과에서 기금 조성액의 감소, 홈테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지적함
  - 2006년도 계획안 분석에서 기금 조달 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 미흡, 중장기 기금 운용 계획과 2006년도 계획안의 불일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축소 필요성을 지적함

## 2. 방송발전기금의 이슈

### □ 방송발전기금을 문화예술 및 언론 부문에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부문에만 사용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문화예술, 언론 문화 부문에도 사용되어야 하느냐?
  - 방송법에서는 문화예술 및 언론 문화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결위 등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문화예술 및 언론 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고함
- 방송발전기금에서 언론공익사업과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2년이후 중단됨
  - 언론과 예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2006년이후 점진적 축소후 중단할 예정임

### □ 방송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는 문제

-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방송위원회의 예산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함
  - 방송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함
  - 방송위원회의 예산을 방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수 있음
-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과 2005년 5월에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이를 언급조차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등에서 기관 및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함
- 한국방송진흥원, 언론재단 등에 대한 기관 운영비를 2006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감액된 금액을 지원하기로 함
  - 이들 기관에 대한 경상비는 2003년부터 12년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기획예산처와 조정된 바 있음
  - 방송위원회는 2004년말과 2005년초에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중단을 결정함 → 국회등에서 기금 조정과정에서 기관운영비가 일부 회생함
  -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예술단의 경우 2006년의 경우에도 경상비를 증액하여 지원함 → 경상비 지원 중단의 원칙에 위배됨

### □ 공익방송사업에 대한 지원

- 교육방송, 아리랑TV, 국회방송, 시민방송 등에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
  - 교육방송의 경우 기금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사업지원이 아니라 기관 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문제
  - 아리랑TV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비외의 운영비등 간접 비용 지원은 지양해야함
  - 국회방송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 2006년에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은 KBS의 전체 재정상태와 국책방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국회예산정책처, 2005. 10)

□ 일반회계 및 타 기금과의 중복

- 방송콘텐츠 개발 및 육성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예산과 중복 가능
  - 기획예산처(2004.8)는 관련 예산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 방송의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경우 정보진흥기금과 부분적으로 중복됨

3. 정보진흥기금의 이슈

□ 기금 조성액의 감소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02년부터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누계액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4년말의 경우 2001년에 비해 23.7% 감소)

<표 7>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현황

단위 : 억원

	'93-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 성	25,414	3,960	4,626	16,743	6,808	4,782	4,478	66,811
사 용	7,452	3,698	3,373	12,749	7,913	6,893	6,823	48,901
순조성	17,962	262	1,253	3,994	-1,105	-2,111	2,345	17,910
누 계	17,962	18,224	19,477	23,471	22,306	20,255	17,9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5.8)

- 연구개발계정은 통신사업자의 부담금으로 70%이상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의 부담금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과 2006년도 계획안의 불일치(국회예산정책처, 2005. 10)
  - 2004년말에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04-08)’에서는 분야별 중기 투자계획을 작성함
  - 2006년도 계획안과 중기 투자계획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
    - 중기계획에서는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투자를 축소하기로 하였지만, 2006년도 예산의 경우 증가
  
- 포괄적 근거에 의한 사업의 추진
  - 근거가 미약한 사업이 다수 있음
    - 2005년도 사례 : IT중소벤처기업경영지원,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공공 R&D 기술기반 벤처육성, 기술기반 IT중소벤처 성장환경 조성 등
  
- 일반 회계 및 타 기금 사업과의 중복
  - 정보통신부의 일반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와의 중복 가능성
    - 예 :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 디지털방송장비 지원, 콘텐츠개발 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 일부 사업에 있어 방송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노동부 등과 중복 지원할 개연성을 갖고 있음(기획예산처, 2004.8)

## V.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기금의 정비 방안

### 1. 방통융합시대에 기금의 용도

#### □ 융합 이전의 기금의 용도와 평가

- 방송부문 : 공익방송지원, 방송위원회 경상비, 시청자지원, 콘텐츠 진흥, 방송기술 개발, 인력양성, 연구 및 저술 지원 등
  -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공익방송지원사업의 경우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방송 규제 및 정책 기관인 방송위원회의 경상비를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통신부문 : 통신부문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지원
  -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성과 평가시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평가를 지양해야 함)
  - 인력양성사업중 단기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융합이후의 기금의 용도

- 방통융합시대에 사업자분류와 규제 정도
  - 방통융합이후에는 콘텐츠와 네트워크(플랫폼 분리 가능) 체제로 대별될 것임
  - 방통융합시대에는 네트워크는 경쟁체제로 유도하여 시장경쟁에 맡기고, 콘텐츠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규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방통융합시대에는 기금이 네트워크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임
  - 방통융합시대에도 콘텐츠의 공익적 성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네트워크부문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지원 필요성이 약화됨
  - 방송발전기금에 비해서 규모가 큰 정보진흥기금 용도의 변경을 고려해야 함
    - 정보진흥기금의 경우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큼

## 2. 기금의 정비의 원칙

### □ 기금의 용도를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야 함

- 기금의 용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사업자 분류체계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 기금의 관리 기관을 행정기구의 개편에 맞추어야 함

- 방통융합으로 규제기관이 단일화될 경우 양 기금의 관리 주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규제기관이 콘텐츠와 네트워크(플랫폼 별도 가능), 정책과 규제, 규제와 진흥 등으로 분리될 경우에 맞추어서 기금의 관리 주체를 결정해야 함

### □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함

-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이 높고, 신축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기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장기적으로 존치할 수 있음

- 일반회계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집중되어야 함
  - 방송과 통신의 진흥을 위하더라도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는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3. 기금의 정비 방안

####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격과 용도

- 수평적 사업자 분류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방·통 융합시대에는 사업분류체계가 방송과 통신과 같은 분류보다는 콘텐츠와 네트워크(플랫폼 분리 포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됨
  - 양 기금도 방송과 통신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 시장경쟁체제인 네트워크 부문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과 분리 여부

- 양 기금을 콘텐츠진흥기금(가칭)과 네트워크진흥기금(가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콘텐츠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경쟁 구도나 규제 원리에 차이가 있을 것임
  -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이 높아야 함
- 콘텐츠진흥기금(가칭)과 네트워크진흥기금(가칭)의 분리시 검토되어야할 사항

- 네트워크 부문에 비해서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기금의 재원은 네트워크에 비해서 콘텐츠 부문이 클 것임
- 콘텐츠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예 : 콘텐츠기금 재원의 일부를 네트워크 부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일기금으로 통합하여 내부 보조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월할 수도 있음 → 이 경우에는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 사업간의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가 발생함
- 콘텐츠진흥기금의 경우 현재 문화부나 정보통신부가 일반회계 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진흥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기금을 단일화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임
- 사업자구도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로 3분할로 분할할 경우에는 기금도 3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 논리적으로 보면 기금을 세 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기금관리 비용 및 기금 기능을 조정 측면을 감안하면 3개의 기금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기금의 관리 주체

-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관리주체를 정함
  - 단일기구가 총괄할 경우에는 이 기구가 관리
  - 독립제 정책(진흥 포함) 기구와 위원회 규제 기구로 분리시 정책(진흥 포함)기구가 기금을 관리

## ■ 참고문헌

- 감사원(2003. 7),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
- 국회예산정책처(2005. 8), 「2004년도 기금결산 분석」 .
- 국회예산정책처(2005. 10),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2003. 9), 「문화관련기금과 방송발전기금 운용실태 평가 및 정책과제」 .
- 기획예산처, 「2001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 각년도.
- 기획예산처(2004. 8) 『기금준치평가보고서』 .
- 대한민국 정부, 「기금운용계획」 , 각년도.
-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의 운영계획」 , 각년도.
- 방송위원회(2004. 12),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
- 방송위원회(2005. 5),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
- 정보통신부(2005. 1),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